제10장

‘한류와 유교’ 연구

임태홍

1. 머리말

2017년은 국내 정치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인 뉴스가 한류 소식을 압도한 한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이해 상반기의 국내 뉴스는 온통 정치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다.

한편 한반도 지역의 국제적인 정치, 군사적 상황도 위험 수준을 넘나든 한해였다. 중국과는 사드(THAAD)라고 불리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북한은 수시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이해 초, 사드를 둘러싸고 중국정부 관계자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는가,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한국을 징벌할 수밖에 없고, 한국은 이번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공언하기도 하고, 실지로 중국은 자국민의 한국관광은 금지시켰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압박과 한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까지 거론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관련된 한류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가수들의 공연이 취소되고 현지에서 방영이 예정되었던 드라마, 영화 등의 계약이 모두 취소되었다.

가을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최고 실력자 김정은 간에 주고받은 설전이 일촉즉발의 전쟁 발발 상황까지 염려하게 할 수준으로 치달았으며, 실지로 미국 정치가에서는 공공연하게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거론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류에 대한 뉴스나 관심은 위축되었고, 특히 중국의

한류금지령(限韓令)으로 인하여 중국과 관련된 한류 스타들의 뉴스가 대중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한류 침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실지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계획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스타들이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중국이나 일본을 제외한 여타지역,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북미지역에서의 한류는 여전히 그 열기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에서 한류 동호회 회원수는 늘어났으며 그들의 활동도 여전히 활발하였다. 중국이 막히면서 한류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였는데,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한해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해에 상영된 〈택시운전사〉나 〈신과함께: 죄와 벌〉등은 대만, 홍콩 등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남성 아이돌 그룹 BTS(방탄소년단)는 북미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여성그룹인 〈트와이스〉, 〈블랙핑크〉는 일본이나 여타 다른 지역에서 K-pop의 새로운 얼굴로 위상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2. 2017년의 한류 연구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에서 키워드로 '한류'를 검색해 보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검색된다. (2017년의 검색 수치는 2018년 10월 19일 현재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수치는 2017년 11월 21일 기준임)

자료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도서자료	35	24	19	17
학위논문	65	74	72	54
학술기사	331	396	527	332
인터넷자료	69	64	74	33
전자자료	3	2	3	1
비도서자료	5	6	4	3
참고데이터DB	1	1		
합계	509	567	699	440

전체적인 자료 수에서 2017년은 전년도 대비 약 250건이 줄었다. 가장 크게는 학술기사에서 200여 건이나 발표 원고가 줄었다. 학위논문도 전년 대비 20여 건이 줄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3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하여도 11편이나 적은 숫자이다. 학술기사는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한류 관련 도서 자료도 2016년 대비 2편이 줄었으며, 2014년 이래 도서자료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류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으며, 신기한 붐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에서 호기심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붐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머리말에서 소개하였듯이 2017년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즉 국내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군사적인 관심도에 밀려서 한류에 대한 연구나 관련 기사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2018년의 연구 상황이 정리되는 2019년에 판명될 것이다.

3. 한류 연구서적

2017년에 발표된 한류연구의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서자료를 살펴본다.

도서자료 17권 중 5권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에서 발간한 보고서다. 이 단체는 지속적으로 한류 관련 동향 보고서와 연구서적을 발간한다. 2017년에는 『포스트 한류 비욘드 아시아 Post Hallyu beyond Asia : 한류, 북미 유럽으로 흐르다』, 『한류 메이커스 : 대한민국 한류 산업론』, 『사드, 그 이후의 한류 : 한류 정치경제론』, 『한류노믹스(Hallyunomics) : 한류효과론』, 『(2017) 글로벌 한류 트렌드』를 발표하였다.

이 외에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2017) 지구촌 한류현황. 1-4』(외교부편, 한국국제교류재단), 국회의원들의 세미나 성과를 모은 『한글세계화 및 한류 문화확산 세미나』(국회의원 유성엽 등) 등이 있다.

민간의 출판사에서 발간된 한류 서적으로는 『신한류 : 소셜 미디어 시대의 초국가적 문화 권력』(진달용, 한울아카데미), 『한류 브랜드 세계화 : 이론과 실행 전략』(한충민, 한경사), 『한중 방송교류와 한류』(이순임, 비즈프레스), 『한류토피아에 이르는 길 : 서구의 벽을 넘어』(박장순, 북북서), 『K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공 전략』(박영은, 커뮤니케이션북스) 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한류론으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 하버드대 박사가 본 한국의 가능성』(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21세기북스)이 발간되었다.

4. 한류 연구 논문

2017년에 발표된 한류연구 학위논문은 모두 54편으로 내용별로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한류와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논의한 논문과 한류가 한국제품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것이 각각 6편으로 가장 많다. 예를 들면 관광산업 관련 연구는 주로 한류문화콘텐츠가 외국인들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 것으로 이중에 중국인들의 관광에 미친 영향을 논한 것이 비교적 많다. 한류가 한국제품의 구매에 미친 영향을 논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은『한류 문화의 요소가 몽골인의 구매태도와 구매행위에 미치는 영향』(몽크체체그, 가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K-pop 관련 연구가 5편이 발표되었다.『러시아 에이전트의 한국국가이미지가 한류콘서트 관여도에 미치는 영향』(Ganzha Galina,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글로벌 장르로서의 한류: KDrama와 KPop의 글로벌 장르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형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한국 대중음악 확산이 러시아인의 한국국가이미지 인식에 미치는 영향』(Kuzmina Alena,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등이 그것이다. 러시아의 K-pop한류와 관련된 연구가 2편이나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 관련 연구가 4편 있다. 드라마 관련 연구는 예를 들면,『글로벌 팬덤을 통한 한국 방송 콘텐츠의 소비와 확대: Viki의 한류 드라마 팬 자막 커뮤니티 인터뷰를 중심으로』(김영환,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사논문)를 들 수 있다.

그 외에 한류와 메스컴 언론보도 관련 연구가 2편 있었다. 예를 들

면, 『중국 언론의 한류보도에 나타난 프레임 비교분석』(장희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과 같이 외국의 한류 보도 프레임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의료관광 관련 연구, 한류와 화장품 관련 연구, 한국영화 관련 연구 등이 각각 2편씩 발표되었으며, 한류가 중국에 미친 영향, 반한류 관련 연구, 한류로서의 한국 패션 연구, 한국어 관련 연구, 방송콘텐츠 관련 연구, 한류와 국가이미지 제고와 관련된 논문이 각각 1편씩 발표되었다. 나머지 연구는 한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연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24편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편, 태국, 러시아, 중남미가 각각 2편, 그리고 일본과 몽골이 1편으로 가장 적다. 일본의 한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적은 것이 인상적이다.

그리고 2017년에 제출된 학위 논문 중에 거의 1/2 정도의 논문이 모두 외국인들이 쓴 논문이다. 말하자면 국내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이 학위과정에 진출하여 학위논문으로 제출한 것이다. 대개는 자신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한류 현상을 연구하였는데 이는 한류가 외국인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연구주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어를 공부한 뒤에 국내에 들어와 한류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한류 연구는 국내 한류 연구의 영향을 받아 역시 사회학, 경제학, 언론학 등의 분야가 많다.

러시아 관련 연구는 거의가 K-pop과 관련된 연구이며, 중국 한류 연구는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류가 발전하면 그 영향력이 관광과 경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러시아의 한류는 초기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학술기사나, 학술논문은 모두 332편이 2017년에 발표되었는

데, 연구 분야는 위의 학위논문과 대동소이하다. 참고로, 눈에 띄는 논문을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번호	논문 제목
1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로 바라본 포스트 한류」(박아녜스, 〈한류 나우〉)
2	「혐한은 혐오 한국인가, 혐오 한류인가? : 혐한담론의 완충제이자 방어기제로서 한류의 가능성」(정수영, 〈한류 나우〉)
3	「'한류인문학'을 제창한다」(김기덕, 〈인문콘텐츠〉)
4	「한류, 대륙길 막혀도 흐를 곳은 넘쳐난다 : 중국의 한한령 이후 새로운 한류 거점으로 떠오른 '동남아'」(정덕현, 〈시사저널〉)
5	「글로벌 한류 열풍의 비밀, 기본이 되는 핵심에 집중하라」(최성준, 〈안전기술〉)
6	「사드가 한류에 보약이 됐다」(이재훈, 〈위클리 뉴시스〉)
7	「한국 드라마 수용에 있어서 국가별 감정 반응 분석 : 드라마 〈도깨비〉를 중심으로」(이에원 등, 〈감성과학〉)
8	「한국음악 100년, 1920~2010」(서우석, 〈철학과현실〉)

이중에서 김기덕의 「'한류인문학'을 제창한다」는 한류의 연구현황과 한류인문학의 필요성, 한류의 발전과정과 한류인문학의 과제, 한류인문학과 인문콘텐츠학회의 역할 등을 논한 연구로 저자는 한류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한류의 전파가 과연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또한 한류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근현대 세계사적 문화교류의 차원에서 이름 없는 문화변방에 머물러 있었던 한국의 대중문화가 최근 20년 동안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한류 연구 상황에서 인문학 차원의 한류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 역할을 인문콘텐츠학회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그는 또 자신이 제창하는 '한류인문학'의 최종 지향점을 한류산업의 활

성화나, 인문학 역할의 증대라는 현실적인 목표보다는 '인류의 공동선(共同善), 인간화, 인간해방'을 그 목표로 제시하였다. 결국 한류인문학은 한류로 하여금 '한국이라는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인류자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 한국인의 '한류와 유교'론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한류'와 '유교'로 검색을 해보면 2017년에 1편만 검색이 되는데, 전병서의 「중국인을 춤추게 하라」(〈Anda 글로벌 성공투자 동반자〉vol.10, 524호, 2017. 5, http://monthly.newspim.com/)가 검색된다. 이 논문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인 전병서가 집필한 것으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논문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제품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유교적 사고방식의 동질성을 들고 있어 소개한다.

전병서는 "중국은 왜 한국의 드라마, K-Pop, 패션, 화장품, 초코파이, 바나나우유에 열광할까?"하고 물으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한다.

> 첫째 지리적 환경의 일치다. 중국은 '중원(中原)의 나라'다. 중국 역사를 보면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패권을 쥐었고 학문과 유행을 주도했다. 중원은 지도를 보면 타이항산맥의 동쪽과 친링산맥 · 회하의 북쪽이다. 위도로 보면 한국의 한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위도가 같으면 사계절이 같고 먹는 것, 입는 것이 유사하며 피부도 비슷

하다. 그래서 한국산 소비재가 잘 팔리는 것이다.

둘째로는 한국인과 중국인은 모두 공자학원 장학생들이어서 사고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2500년 전 공자의 말씀인 논어는 한국인과 중국인 사고의 기본 틀이다. 한국은 미국식 교육을 60년간 받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두 유교의 가르침이 기본이다. 한국 돈의 모든 인물은 유교 장학생이거나 유교 장학생을 낳은 어머니의 얼굴이 인쇄돼 있다.

셋째, 한국인은 중국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DNA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한국은 2000년간 중국과 250여 차례의 전쟁을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인의 속성을 속속들이 아는 눈이 생겼고, 이것이 한국인이 중국인의 마음을 읽는 DNA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전병서의 설명은 다소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답변 중에 지리적 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의 한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공자의 배움을 중국인과 한국인은 공유를 해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류와 한국 제품에 열광한다는 것이지만, 역시 중국 이외의 지역, 예를 들면 미국인들 중 일부지만 한류 팬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 음악을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마지막 3번째 설명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다. 한국인들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이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전 지구적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인가?

물론 전병서의 설명은 중국에서 유행하는 한류 열풍을 제한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명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은 화폐에 유학자들의 초상을 그려 넣은 세계 유일한 나라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전병서는 나아가 "사드 보복의 폭탄을 맞은 한류문화상품은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하고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목을 매서는 한류의 미래가 없다. 아시아적 가치가 만들어져야 가능하다. 칼군무와 미소년, 미소녀를 앞세워 가창력이 아닌 떼창과 몸으로 하는 K-POP은 추월당하기 쉽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반도체와 휴대폰을 만들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와 비즈 모델을 만들고 모든 하드웨어는 원가 경쟁력이 가장 싼 중국에서 만든다. 한류도 이것을 벤치 마크해야 한다.

그동안의 K-pop스타일로는 장래가 없다고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예를 들면 아시아적 가치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말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는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장인정신'을 지적하였다.

> 문화는 장인정신이다. 삼류는 제품을 팔고, 이류는 기술을 팔고, 일류는 문화를 판다. 문화는 브랜드이고 깊이와 넓이가 문화의 수명

을 결정한다. 시간의 숙성과 장인의 노력이 명품 브랜드와 문화를 만드는 필수 재료다.

그리고 그는 "문화를 정복하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 중국인, 아시아인의 마음을 울리려면 먼저 그 문화, 역사를 아는 게 필수다. 서울대에 오락엔터학과를 만들고 SM, YG, JYP가 중국과 아시아 문화대학을 만들어 깊이 공부한 다음 중국과 아시아 공략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19년,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전병서의 제안은 이미 낙후되어 있다. 중국과 아시아의 문화대학을 만들어 아시아인의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한류를 중국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한정시키는 일이다. 한류는 좀 더 큰 시장, 좀 더 큰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 러시아, 중남미, 그리고 미국시장을 거점으로 삼아 글로벌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류다.

2017년에 전병서가 보지 못한 점은 한류의 생명력이다. 그리고 그 다양성이고 다이내믹한 역동성이다. 예를 들면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대표적인 주자들 즉 SM, YG, JYP를 들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고 힘을 재충전하여 중국과 아시아를 공략해라고 하였으나, 요즘 미국과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업체는 그들이 아니고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다.

이 회사는 2017년 영업이익이 325억원으로, SM의 109억원, YG의 252억원, JYP의 195억원보다 월등히 많다. SM은 2016년 까지만 하더라도 K-pop시장을 리드하는 듯하였지만, 낙후된 음악적 컨셉과 지나친 중

국시장, 일본시장 의존으로 치열한 K-pop시장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 SM의 침체는 K-pop 업계가 얼마나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6. 외국인의 '한류와 유교'론

2017년, 국회도서관 자료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Medium'(https://medium.com/)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한류와 유교에 관련된 흥미로운 글이 있어서 소개한다. 미카엘 허트(Michael Hurt)가 쓴 「K-pop은 신유교의 포르노다(K-pop Is Neo-Confucian Pornography)」라는 다소 도발적인 문장이다. 저자 허트는 2002년 이래 서울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쓰는 사회학자로 자신을 'visual sociologist' 즉 시각사회학, 달리 말하면 영상문화 전문 사회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글은 바로 국내 인문학 연구자 이우창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우창은 역시 인터넷 매체인 〈HUFFPOST〉에 「K-POP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인가?」(2017.03.17)라는 글로 비판했다. 허트의 원문의 번역문은 네이버에 실려 있다.(Piano Shoegazer, 「번역 케이팝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이다」, 2017.3.14.)

먼저 이우창의 반박부터 소개를 하자면, 그는 허트의 글이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특히 '유교'에 대해 언급하는 대부분의 사항들이 틀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허트가 '유교적 여성관의 특징이라고 지적하는 사항들은 여성혐오라고 부르는 것들의 사례를 모아놓은 것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그가 '2010년대의 한국문화를 설명함에 있어 신유교주의 말고 그 어떠한 문화적 원천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를 들면 K-pop에 그런 포르노적인 요소가 있다면 일본에서 유입된 포르노 문화가 신유교주의, 즉 조선 성리학의 영향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우창은 허트가 말하는 '유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하였다.

그러면 허트는 왜 K-pop이 신유교주의의 포르노라고 주장했을까?

우선 K-pop은 무엇일까? K-pop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가요'가 아니다. 외국인들이 즐기고 듣는 한국가요를 K-pop, 즉 'Korean po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K-pop은 엄밀히 말하자면 듣는 주체가 외국인인 한국 가요를 의미한다. 이 점에서 한국인 비평가 이우창은 K-pop을 분석하고 허트의 문장을 반박하는데 한계가 있다.

허트는 아마도 미국인으로 미국의 팝문화적인 맥락에서 그가 목격한 K-pop을 분석한 것이다. 그 점을 염두에 두지 못하면 허트가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

즉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사회적인 위상, 여성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는 허트가 말하는 'K-pop'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필자도 미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미국의 여성 가수들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한국의 여성 가수들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여성 가수들은 무대에서 공연할 때 브라자와 팬티만 입고하는 경우가 흔하다. 마돈나, 비욘세, 레이디 가가, 케이티

페리, 리한나 등 아주 많다 그들은 또 성적 어필이 강하고 개성도 매우 강하다. 그들이 찍은 음악 비디오를 한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지저분하며 성적인 주장이 너무도 강하다. 그야말로 포르노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여성적인 모습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도 매우 선정적이다. 예를 들면 아리아나 그란데의 '사이드 투 사이드(side to side)'를 보면 '난 하루 종일 여기 있었어, 넌 내가 비틀대며 걷게 만들었어.(I've been here all day. And boy, got me walkin' side to side.)'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것은 격렬한 성관계 후에 여자가 잘 걷지 못한 상태를 노랫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에는 '네가 거기 그 멋진 몸으로 서 있는 걸 봤어. 너의 몸과 뒹굴고 싶은 느낌이야(See you standing over there with your body, Feeling like I wanna rock with your body)'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러한 성적인 내용이 매우 흔한 것이 미국 팝음악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허트의 글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허트는 간단히 'K-pop'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히는 K-pop의 뮤직비디오 혹은 공연 사진을 말한다. 특히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이 신유교주의 포르노, 달리 말하면 성리학적 포르노라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미국 팝 뮤직의 포르노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우창의 반박은 단지 K-pop에 포르노적인 모습이 있고 그것이 조선의 유교주의적인 전통에 맥이 닿아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크게 의식하고 있으나 허트가 말하는 성리학적인 포르노는 노골적인 미국팝적 포르노와는 다소 특이한 모습, 즉 순결성을 강조하고, 순진함을 강조하면서도 성적인 모습이 K-pop에는 보인다는 것이다.

이우창은 허트가 "유교에 대해 아는 것은 막연히 위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동양의 나쁜 풍습이라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였는데, 허트의 유교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

허트는 서구의 연구자들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모든 것을 유교로 환원하는 오류'에 빠진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한국을 이해하는데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글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 출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 조선시대에 등장한 유교주의적, 신유교주의적 가치는 한국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케이팝 산업에서 유교의 '충'은 아티스트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나타나며, 유교주의적 성역할은 남성 아이돌과 여성 아이돌이 묘사되는 방식에 드러난다. 한국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유교적 가치를 소거하지 않고 이를 권력과 효율을 좇는 자본주의 사회에 병합시켰다.

유교적 가치가 현대 한국사회의 자본주의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 문장이다. 특히 케이팝 산업에서도 아이돌 가수들의 통제에 그것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허트는 이러한 언급을 바탕으로 여성 아이돌의 성적인 어필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글을 써내려 갔다.

그는 우선 '주류 포르노와 케이팝이 공유하는 언어가 있다. 두 매체는 순결함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다. …… 순진함을 환유해서 말하자면, 성욕을 더욱 자극하는 욕망의 대상이다.'고 하였다. 즉 케이팝의 뮤직비디오의 여성 아이돌에서 보이는 순진함은 가끔 성욕을 자극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 부부분이 성리학적인 포르노라는 것이다.

미국 여성 팝가수들이 보여주는 노골적인 포르노와 비교해보면, 성리학적인 포르노라는 허트의 표현은 비난이나 비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에 가깝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 케이팝은 자신을 예술로 변호하고자 한다. 그러나 자주 포르노의 문법 혹은 어휘를 종종 빌리곤 한다. 그렇다면 로타(가 찍은 K-pop사진)는 포르노인가? 나는 로타(의 사진이)가 사전적 정의를 엄밀하게 따른다면 포르노라고 주장한다.

허트가 보는 포르노란 그의 정리를 따르면 a) 명백한 성행위 수행, b) 현저하게 성적으로 호소하는 누드를 말한다. 포르노란, 포르노그라피(pornography), 즉 춘화(春畵), 애로사진이다. 허트에 따르면 K-pop의 뮤직비디오에는 자주 포르노의 방법을 동원하여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그는 "케이팝 뮤직비디오는 실제로 포르노와 같은 기호적 문법과 어휘를 호소하기 때문"에 포르노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저자 나름대로의 해석이기 때문에 반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케이팝의 포르노는 주류 포르노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유교주의적(성리학적)'이라는 전제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유교주의란 무엇인가? 허트는 이 부분에 많은 서술을 하고 묘사를 하였다. 그는 기본적인 전제로 "오늘날 한국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신체를 유교적으로 여긴다."고 보았다. 우리는 그의 이러한 선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미국사회는, 혹은 영어권 사회는 여성의 신체

를 어떻게 보는가 이해를 해야 한다. 서양인들은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기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우리는 허트가 말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관이 허트가 가지고 있는 서양적인 여성관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한국인의 여성관의 대립항으로 미국인들의 여성관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허트는 유교의 여성관에 대해서 Taeyeon Kim이 2003년에 집필한 "Neo-Confucian Body Techniques: Women's Bodies in Korea's Consumer Society."을 근거로 삼고 있다.

위의 논문에서 허트가 빌려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선 유교주의에서는 남성만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해 자아 수양을 할 수 있다. 조선 유교는 여성은 현자가 될 수 없으며 자아와 신체를 초월하기 위한 필요나 능력도 없다고 상정한다. 남성은 고전을 연구하며 심적인 자아를 남기며 조상숭배 제도를 통해 육체적인 자아도 남긴다. 그러나 여성은 물리적인 신체를 통해 번식하고, 가족 구성원을 유지하기 위한, 육체적인 신체로서만 존재한다.

이러한 정의가 옳은지 틀린지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600년 동안 유교의 세례를 듬뿍 받고 사회전체가 유교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으로 다양한 모습이 존재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미국인이 위에 인용한 내용에 공감을 표한다는 것은 미국적인 여성관에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 여성

은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남녀의 구분이 있겠지만 미국의 정신적 기반인 청교도 정신이나 기독교(개신교) 교리에는 적어도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그러한 여성관은 없다. 허트는 그 점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조선 유교학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하다."고 보고, 한국에서 "여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데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여성은 아기와 자신의 번식능력에 의해 가치를 가진다. 여성의 신체에는 주체가 없다고 여겼다."고 보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주체가 없는 신체'로서의 소녀는 결혼이 되기 전까지는 남자에게 닿을 수 없다는 개념과 더불어 소녀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까지 나아간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주체성이 없는 여성의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 미국적인 여성의 이미지와는 아마도 반대되는 이미지일 것이다. 미국 여성 가수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활동을 펼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K-pop여성 가수들과는 다르다.

허트는 나아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한국식 신유교주의는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유교의 문화적 잔향은 젠더와 여성, 권위의 수직적 흐름, 그리고 심지어 교육 방식에까지 뿌리를 내렸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소녀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7살 때부터 성적인 뉘앙스로 인해 소년들과 분리된다. 아울러 사회는 자라서 아이를 낳는 능력으로

여성을 평가하며, 여성을 중요한 대상이자 미덕의 용기(容器)로서 여긴다. 그래서 여성은 자신의 심신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는 유교주의의 잔향 때문이다."라고 설명한다. 심지어 그는 "유교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미덕의 용기이며, 종의 보존을 위한 도덕적이고 생물학적인 번식단위이다."라고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쇠창살(Iron Cages)론을 빌려 K-pop의 성적 측면을 정리했다. 쇠창살이란 사회 통제를 위해 혹은 어떤 사회적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 혹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동원되는 사고 방식(혹은 이데올로기)이다.

허트는 "한국사회는 더 이상 전통 유교주의와 관련된 것들을 행하지 않으며 지양하기도 한다. 남녀 내외는 없으며 여성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여성의 신체는 재산이 아니며 여자는 혼자 외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는 '유교주의적 쇠창살'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조선시대처럼 계속 여성을 타인에게 종속시키며 잔존한다."고 보았다.

그러한 '쇠창살'에 근거하여 K팝 시장에서 "여성은 성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고 남성을 유혹할 수 있어야 가치를 갖는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 현재 K팝 뮤직비디오는 여성의 지위를 한국 신유교주의 이데올로기가 오래전에 정한 성기와 정액을 받는 용기(容器)라는 지위로 하락시킨다. 여성이 곰이든 여우든 간에, 순결 판타지든지 포르노적 쾌락이든지, 성녀든지 창녀든지 간에 여성의 주체적인 지위는 수동적인 성적 용기(容器)가 되었다. 단어 사용이 다소 거칠 수 있지만 사

실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여성의 지위를 성적 용기로 정의하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로 변화가 존재했으며 모든 여성이 임신하길 요구하진 않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비디오의 여성들은 현대적인 옷을 입었을 뿐이지 여전히 신유교주의 성적 용기이다.

이러한 결론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허트가 경험한 미국적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다. 특히 K-pop 비디오에서 여성이 주체성을 상실한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적인 덕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외면하기 힘들다.

7. 맺음말

한류는 마치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다. 그것은 이미 끝나버린 문화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변모해가는 사회현상이다. 본문에서 소개한 전병서의 「중국인을 춤추게 하라」는 바로 그러한 한류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2018년 현재, 전병서가 2017년에 예상하고 희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한류가 움직이고 있다. 한류는 그만큼 예측불허의 현상이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류'가 마치 한국인 자신들 만이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현상인 것처럼 생각한다. 한류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한국문화'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심지어는 제작과정까지 개입하는 한국문화이다. 만약에 지구상에 한국인들만

있다면 한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류'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류'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들의 문화현상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표되는 한류관련 학위 논문 중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논문이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들에 의해서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러한 점을 잘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위에서 소개한 허트의 문장「케이팝은 신유교주의 포르노이다」를 보면 유교를 연구하는 사람, 혹은 케이팝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읽어 본다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타인들이 행하는 나에 대한 평가에 내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듯이, 한류를 해석하는 외국인들의 작업에 한국인들이 멋대로 개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류는 외국인들이 느끼고 즐기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전제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여 감상하고 평가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즐기는지 이해하는 일일 뿐이다. 좀 더 나간다면 우리는 그들이 한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 자신, 우리 문화, 그리고 우리 역사와 사회를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해하는 일이 우리, 즉 한국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